

##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곧 우리들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마르 16,6)는 이 기쁜 소식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기쁜 소식입니다. 위로의 소식입니다. 희망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되살아나시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계시며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도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맨발로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뒤에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이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노예살이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감사하는 노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나의 희망, 나의 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세”라고 노래해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축하며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돼야 합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사도 4,33)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을 들을 때”(루카 24,32 참조)와 “빵을 뿔 때”(루카 24,30-31 참조)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성체성사를 거행할 때마다, 우리가 영하는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은 힘을 잃고 맙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발걸음을 재촉하며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다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비신자들에게 달려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증오하며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말에서 떨어져 눈이 멀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사도 9장 참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주님을 전하는 증거의 삶입니다. 사랑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처럼 남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 때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실직자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희망의 보루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마태 11,28 참조), 청하는 것을 얻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마태 7,7 참조). 지금 고통 중에 계신 여러분, 절대 절망해서는 안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의 부활절이 더욱 뜻 깊은 것은 김수환 추기경님의 서거를 통해 이 땅에 부활의 기쁜 소식이 널리 전파될 기반이 잘 성숙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가슴에 숨겨져 있던 사랑이 부활하여, 장기를 기증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소식이 충만합니다. 우리 모두 김수환 추기경께서 다져놓으신 예비 선교의 바탕위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비신자들에게 널리 전하는 데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할 때 부활의 기쁜 소식은 널리 전파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 안에서,  
천주교 인천교구 교구장 최기산 보니파시오

## 예수 부활의 의미와 전례

예수 부활은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 신앙의 정수다. 신앙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행위이므로, 부활은 하느님의 순수한 선물, 곧 은총이다. 신앙 생활은 부활한 생활이며(에페 2,6; 골로 3,1) 몸의 부활을 향하는 생활(로마 8,11; 요한 5,29)이어야 한다.

### 예수 부활의 의미

예수 부활과 관련해 가장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시신을 모셨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이다. 빈 무덤 자체가 부활을 직접 증거하지 않지만, 빈 무덤은 예수 부활의 핵심적 징표다. 다른 증거는 부활한 예수가 마리아 막달레나와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사도들, 엠마오의 제자 등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1코린 15,6). 예수는 제자들이 당신을 만지게 하고 함께 식사함으로써 자신이 유령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 부활한 예수는 시공간을 초월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마태 28,9.16-17; 루카 24,15.36; 요한 20,14.19.26; 21,4 참조)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부활은 죽은 시신이 다시 살아나는 재생(再生)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수가 지상의 삶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의 세계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 부활이 역사적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굳은 신앙이 이를 잘 보여준다. 구원자라 믿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제자들은 각자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이들은 부활한 예수를 목격한 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예수 부활을 증언하며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부활한 예수의 육신이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은 부활이 초월적 사건임을 알려준다. 초월적 사건이란, 부활은 하느님이 이루신 사건을 뜻하며 이는 신앙의 신비다.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분은 하느님이라는 신앙이다. 이에 교회는 부활이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달하는 ‘신비’라고 가르친다.

예수 부활의 의미는 구약에서 예언된 약속과 예수가 지상에서 한 약속이 실행됐음을 보여주는 것에 있다. 즉 부활은 예수가 구약에서 예고된 메시아이며,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예수는 나아가 당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는 우리도 부활한 예수의 은총에 힘입어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되새기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살아있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위한 것이다.

### 부활시기 및 전례

교회는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50일을 부활시기로 정해 성대히 기린다.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은 정해져 있지만 예수 부활 대축일은 해마다 다르다. 부활 대축일은 유대인들의 파스카 축제에서 유래된 것으로, 춘분(3월 20일)이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 첫 주일에 지낸다. 올해는 3월 20일 이후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음력 15일)이 4월 10일 이어서, 바로 그 다음 주일인 12일을 부활 대축일로 지내는 것이다.

부활 시기의 전례적 특징은 ‘기쁨과 찬미’다. 사제는 기쁨을 상징하는 백색 제의를 입고, 사순시기에 부르지 않은 알렐루야와 대영광송을 부른다. 또 매 미사마다 부활초를 켜 예수 부활을 경축한다.

부활 성야 전례의 핵심은 ‘빛의 예식’이다. 부활초에 불을 옮겨 밝히고 성당으로 행렬하는 빛의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세상에 새 생명을 가져왔음을 상징한다. 교회는 또 부활의 기쁨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활시기 첫 8일을 대축일로 정해 축제처럼 지내는 데,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 때 모두 일손을 놓고 매일 미사를 참례했다.

<평화신문 2009. 4. 12일자>

## 본 당 소 식



예수부활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주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성주강과 부활절을 준비하느라 힘써주신  
성가대, 구역장, 전례담당, 관리담당, 성모회,  
주일학교, 복사단, 사목회, 오늘 성모회를 도와  
찬교식사를 준비해주신 분들, 그리고 드려나지  
않게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 4월 구역모임 안내

워터루 1구역: 18일(토) 오후6시 한택종형제집  
캠브리지 구역: 18일(토) 오후6시 김흥식형제집

### ● 집에서 쓰실 초 판매합니다.

찬교 식사중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2가지입니다 (\$4 과 \$3)

문의 : 한택종 총무

### ● 주일학교 등록 및 문구 용품 Donation

- 주일학교 대상: 주니어 (JK ~ 2학년)  
시니어 (3 ~ 6학년)
- 문의: 노재현 아킬레오 ☎ 519-590-4493

### ● 바뇌의 성모 기도회 모임 안내

4월 24일(금) 오후 7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 로고스회(성경공부) 모임

4월 15일(수) /4월 17일(금) 평일 미사 후

### ● 성모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버섯 판매를 다시하오니 주문해주세요.

문의: 정재희 ☎ 519-884-1054

### ● Garage세일 안내

오는 5월 9일(토) 오전 8시부터 St. Atony Daniel성당과 함께 Garage 세일을 합니다. 세일 아이템을 기증하실 교우는 성모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용이 가능한 품목이어야 합니다.

### ● 예비자 교리 공부 안내

매주 주일 미사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8월 15일 세례예정 예비자반은 마감되었고, 6월부터 시작하는 성탄예비자반 모집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널리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문의 : 박재영 바오로 ☎ 519 747 4981

▶ 오늘 미사 후 예비자 교리 있습니다.

### ● 지구의 날 행사 안내

지구의 날을 맞아 St. Antony Daniel성당과 함께 교육관 및 본당 주변을 청소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일시: 4월 18일 (토) 오전 10시 ~ 오후 12시

준비물 : 장갑, 집게, 갈퀴리 등 청소도구

문의 : 한택종 막시모 ☎ 519 883 8488

### ● 관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기 위해 소성당, 사제관, 뒤뜰의 정원조절 등 교우들의 자발적인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봉사를 자원하시는 교우는 관리분과장에게 연락주세요.

문의 : 이명희 스테 파노 ☎ 226 338 0679

### ■ 본당신부 단상(斷想)

올해 본당 교우 여러분과 함께 성삼일 전례를 처음으로 거행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캐나다인들도 다 성삼일 전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모든 신자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삼일을 잘 지내면 부활의 기쁨이 더욱 커지며, 삶과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설시참신도(舌是斬身刀)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혀와 혀는 자신을 베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인은 기도할 때마다 입술을 지켜달라고 청합니다. 칭찬하고, 이해하고, 협조하고, 다른 사람이 잘되기를 기원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던데...



##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 lucasmuse@korea.com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 519 894 3533

###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평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유아 세례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예비자교리

고해성사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상시

10개월 전 신청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미사 전 20분

1주일 전 신청

2009-17호

2009. 4.11-12.

##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전례

해 설 이 정숙 차주 해설 이 명희

성 가  
입 당 (136) 예수 부활하셨도다  
봉 헌 (214) 주께 드리네  
성 체 (165) 주의 잔치  
되 장 (135)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예수

독 서  
4월 12일 최우석 최연옥  
4월 19일 김현태 김진선  
4월 26일 고영호 고기숙

봉 헌  
4월 12일 신상우 신혜련  
4월 19일 최우석 최연옥  
4월 28일 김현태 김진선

복 사  
4월 12일 최예슬 호동  
4월 19일 김근영 이수민  
4월 26일 박규환 김건우

친 교  
4월 12일 다함께 4월 19일 백합팀  
4월 26일 신비팀 5월 3일 환희팀

### 2009년 4월 5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790.00

교 무 금 : \$

교 구 청 : \$ 20 (207)

성전건립 : \$

소성당 : \$ 610.00 (익명)

합 계 : \$ 1420.00